

일주문



조계사 생전예수재 법문
법산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스님은 10월 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진을 주제로 생전예수재 법문을 했다.



설치미술전 '하루헌전' 개최
선진 대구 보현암 주지 스님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구 동구 야양아트센터에서 설치미술전인 제12회 '하루헌' 전을 개최했다.



진흥원 11월 화요열린강좌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1월 17일 오후 7시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초청 '11월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성광문 前전북교사단장 동백장수훈
성광문 前교사단장 전북지단장은 10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한국조형교육학회 우수논문상
이수경 동국대 교수는 10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2015 한국조형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봉춘 교수,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

12월 17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서 시상식

'2015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로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를 펴낸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는 조선시대 불교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불교의 흥기와 조선불교의 활동을 세밀하게 다뤘다. 역불승유과정에서도 그 이면의 불자들의 노력을 다뤘다.

불교사 전환기의 두 지성인 자초와 기화, 불교에 대한 신앙과 불교를 외호한 효령대군, 선교사상과 불유의 융합 조화론을 제시한 허응보우, 구국활동과 교단을 중흥시킨 사명유정, 배불 항론의 대표적 상소인 <간폐석교소>를 지은 백곡처능, 조선 후기 선문을 중흥하고 법통을 수립한 경허성우 등이 그들이다.

이봉춘 교수는 "현재의 불교는 조선시대 불교사의 '어둠'과 '우울'을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쇠락'과 '소외'의 지평을 넘어선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불교문화대학원장·대학원장·불교사화문화연구원장·원효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대불교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어린이·노인 위한 도량 만들 것”

서울 조계사 신임 주지 지현 스님



서울 조계사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중심으로 성역화 불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들 사업의 실무적 중심에는 지현 스님(사진)이 있다. 지현 스님은 총무원 총무부장이자 총본산성역화불사 총도감에 이어 최근에는 종단 직영사찰 조계사의 주지로 임명됐다.

그런 만큼 하루 일과도 바쁘다. 조계사의 경우 아침 8시에 사중 일과가 시작된다. 이미 6시에 조계사 교역직·일반직 종무원과 회의를 열고 하루 중무 행정 사안을 점검한다. 총무부장으로서는 일과도 9시부터 진행된다.

눈코 뜰 새 없이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현 스님은 조계사를 더 나은 도심포교 도량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복안을 머리에 그리고 있다. 실제 지현 스님은 척박했던 농촌 사찰인 봉화 청량사를 20년 동안 한국불교포교의 모범사례로까지 일궈낸 '포교의 달인'이다. 최초의 산사음악회부터 최근에는 사찰 첫 모유 수유실 설치, 청량사 어린이 밴드까지 스님이 시작한 포교 사업은 곧 누구나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모델이 된다.

“조계사는 사중에 활기가 넘칩니다. 일일 자원봉사 인원만 150명입니다. 이들은 직원보다 먼저 나와서 하루 일과를 챙깁니다. 중고등학생들도 70~80명이 법회에 나오더군요. 포교 자원은 여느 사찰 못지 않습니다.”

수유실·0~4세 어린이집 건립해 가족이 편히 오는 사찰로 '일신' 노년 신도 많아...노인대학 설립 '조계사 밴드 만들어 청량사와 합주'

그럼에도 조계사가 그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는 게 지현 스님의 주장이다. 먼저 꼽은 것이 노년 계층이다. 노년을 위한 포교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다.

“조계사에는 노년 계층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노인들을 위한 강좌나 시설이 부족해 보입니다. 먼저, 노년층은 법당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하다가 편하게 잠시 쉬 수 있는 법당 내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교대학은 있는 데 노인대학이 없어요. 노인대학도 개설할 생

각입니다.”

가족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는 봉화 청량사에서의 경험을 심본 살릴 계획이다. 가장 먼저 착수할 것은 모유 수유실이다. 가족 단위 참배객, 관광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모유 수유실은 경내 관음전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조계사에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어린이집 설립도 구상 중이다.

“모유 수유실은 11월 중 개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위에 회자들이 많은 데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드뭅니다. 이를 위해 0~4세를 위한 어린이집 개원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재미'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재미있게 사찰에 올 수 있도록 밴드, 영어·중국어 강좌 등을 개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조계사 어린이 청소년 밴드가 결성되면 청량사 어린이 밴드와 합동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현 스님이 그려내고 있는 포교 아이템은 많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법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총본산 성역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 인근 화사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이루는 것도 기약 중이다.

“조계사만의 특성을 하나 하나 살릴 수 있는 불사를 할 것입니다. 인근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계사,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도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중요한 포교 도량으로 조계사를 만들 것입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한마음 자비의 쌀' 전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해월)이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한마음 자비의 쌀' 2000kg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10월 28일 김용섭 신도회장 등이 참여한 전달한 '자비의 쌀'은 서구청으로 통해 서구지역 독거 어르신들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지사 비로자나불 점안봉불식



춘천 현지사는 10월 12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점안 봉불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안 봉불식을 기해 현지사는 전각 실내에 탈색 단청도 단장했다. 법회에는 자재 만현 스님과 1000여 대중이 참석했으며 현화회식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제2의 도약, 2017년 완전개원 위해 나서겠다”

태석기 동국대 일산병원장



최근 개원 10주년을 맞은 동국대 일산병원이 2017년 완전개원을 목표로 제2도약에 나선다. 10월 2일 태석기 동국대 의료원장(사진)은 개원 10주년 간담회에서 “조계종 종합병원으로의 정체성을 확고히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병원 위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먼저 공간정비위원회 마련해 2015년 말 까지 노후시설 개선계획을 할 예정이다. 2003년 준공된 이후 상위권 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평가 받아온 입원동과 서비스동에 대한 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 원장은 “요즘 시설은 환자의 입장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일산병원은 환자 30% 이상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위치한 서울·경기 서북부 지역에는 2018년 가톨릭대 은평병

2018년부터 병원 경쟁 심화 경영 효율화 위한 노력 지속

원과 이화여대 마곡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일산지역의 일산 백병원, 보현공단 일산병원, 서남의대 부속 명지병원까지 경쟁심화에 당면해 있다.

태석기 원장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산병원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선 상태”라며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 도약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젊은 의료진, 신규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현재 가스시설 개선으로 난방효율화를 이루고, 병원 초창기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꾸며 경영지표가 개선된 상태다.

태 원장은 “흑자전환에만 안주하면 경쟁이 심화되는 현 국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현재 800병상 규모지만 1000병상은 되어야 규모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경영상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일산병원은 불교계 종합학교로서의 역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태 원장은 “병원에서 하는 승가복지나 저소득층에 대한 캠페인에 불자들이 동참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신분당선의 동국대 일산병원역 개통 등 중단 안팎의 역할을 모으는 데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조계종 26주년 기념 법회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해인)은 11월 1일 여주 백화사에서 중도스님들과 사부대중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26주년 기념 창종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아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비롯해 무형문화재 학술, 색소폰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진행됐다. 아울러, 덕산 스님과 자명 스님의 축하무대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해인 스님은 “불교조계종은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지표로 삼아 수행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 1의 종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1인 10명 포교를 목표로 정진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3기 면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여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치료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약사요...

실전문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개인상담 및 공·사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KBS 굿모닝 대한민국
SBS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여자 그 남자
채널A 한성로 특종세상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jtbc 부모찾기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YTN 사이언스 과학행기